

‘국내 2번째 수형자 확진’ 광주교도소 감염원 불명...정밀 조사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광주교도소 수형자의 감염 경로가 불분명해 교정시설 내 추가 확산 우려가 크다.

앞서 확진으로 판명된 직원과의 접촉 경위가 명확하지 않고,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 방역당국이 정밀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

광주시와 교정당국은 전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광주교도소 수형자 50대 남성 A씨(광주 615번 환자)에 대한 정밀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

특히 교도소 내 폐쇄회로(CC)TV 영상을 집중적으로 살펴 실내 동선과 접촉자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A씨가 기존 감염자인 교도소 직원 B씨(광주 607번째 환자)와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명확한 접촉 장소·시점은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다. 장시간 밀폐·밀접 공간에서 서로 만났을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A·B씨 모두 시설 내에서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한 것으로 잠정 확인됐다고 교정당국은 설명했다.

현재 A씨는 교도소 내 독립 시설에 격리됐으며, 같은 방에서 생활한 다른 수형자 3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다.

확진자 간 접촉 경위 불명확...마스크 착용 문제 없는 듯

공동 주거·식사 등 감염 취약...추가 확산 배제할 수 없어

방역당국 “취약 시설 위주 집중 조사...확산 방지에 최선”

음성 판정을 받았다.

교도소 측은 A씨와 직·간접 접촉이 의심되는 수형자와 직원들은 모두 격리 조치됐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수형자들은 취침·식사 시간 외에는 교도소에서 지급한 면 마스크를 쓰고 있다. 수형자 개인이 주기적으로 세탁해서 쓸 수 있고 필요에 따라선 일회용 KF마스크를 보급받아 착용한다.

특히 재판 참석, 병원 진료 등 외부 일정이 있을 경우에는 KF94 마스크를 지급 받는다.

교도소 측은 마스크를 종류별로 보유, 넉넉히 보급하고 있으며 질병관리청의 방역 지침을 준수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수형 시설 특성상 감염에 취약한 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전국 모든 교도소가 공통적으로 ▲독거방

▲3-5명 거주실 (중방) ▲10여 명 거주실(대방) 등으로 나눠 수형자를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착용해도 일상 생활 접촉은 불가피하다.

마스크 의무 착용을 강력 권고하고 있지만, 거주실 공동 식사 또는 실외 운동(하루 2-3시간) 등의 과정에서 감염 예방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수형자 내 추가 감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대목이다.

광주교도소는 확진 통보를 받은 전날부터 수형자의 불필요한 이동은 모두 제한했다. 노역장 운영도 모두 중단돼 수형자들은 거실에만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광주교도소 내 수형자는 1990여 명에 이른다.

방역당국은 수형자를 포함한 교도소 관련



지난 9일 오후 광주 북구 광주교도소가 직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인해 통제되고 있다.

자 795명에 대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벌이고 있다. 현재까지 확진자를 제외한 720여 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 나머지 70여 명은 검사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정확한 감염 경로를 규명하고자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 수형 시설의 특성상 감염에 취약한

장소가 있을 것으로 보고 집중적으로 살핀다”며 “감염 연결 고리를 찾아내 추가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수감 중인 수형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은 지난 2월 말 김천소년교도소 이후 전국 두 번째다.

서선욱기자

‘코로나 탓 근무일 감소’ 노인 일자리 참가자 고충 심화

“사회에 기여한다는 보람 잃었다”...생계도 노심초사

코로나19 여파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근무 일수가 줄면서 참가 노인들의 정신 건강 유지와 생계에 적신호가 켜졌다.

올 한해 잦은 사업 중단에 이어 최근 또다시 재우행이 발생, 재개 전망마저 밝지 않아 고충은 날로 커지고 있다.

해당 사업은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환경 미화·길거리 캠페인·단순 전산 작업 등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노인이 사회 활동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 건강향후 생활을 보장하자는 취지다.

김모(80·여)씨는 15년 전 남편을 여읜 뒤 우울감과 무기력함에 시달렸지만, 올해 1월부터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가하면서 활기를 되찾았다.

김씨는 환경 미화 활동을 통해 같은 또래와 대화를 나누면서 마음의 병을 점차 치유할 수 있었다. 자연스럽게 재활 운동 효과도 나타나 만성 질환이었던 무릎·허리 통증도 호전됐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 9월부터는 일을 하지 못하는 날이 많아지며 또다시 몸과 마음이 지쳐갔다.

김씨는 “일을 나가지 못해 집에서 TV만 보고 있다. 경로당조차 가지 못해 일상이 무료하고 고립감까지 든다”고 밝혔다.

이어 “다음달에도 일을 할 수 있을지 불투명

하다고 들었다. 하루빨리 상황이 좋아져 다시 일터에 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환경 미화 사업을 통해 사회에 보람이 된다는 뿌듯함과 긍지를 느꼈다는 김모(83)씨도 아쉬움이 컸다.

김씨는 “비록 천변에서 쓰레기를 줍는 사소한 일이라도 사회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에 보람 있었다. 그렇기에 일을 못하게 되면 매우 아쉬울 것 같다”고 말했다.

당장 눈 앞에 닥친 생계 걱정도 컸다.

노인 일자리를 통해 한 달에 27만 원을 벌어들여 생활비로 쓰고 있는 안모(77·여)씨는 다음달부터 일손을 놓을 처지에 놓여 걱정이 가득하다.

김미희기자

‘父유산 왜 안 줘’ 노모 폭행한 아들 항소심도 징역형

항소 기간·징역 1년 1십 형량 유지

아버지의 유산을 나눠주지 않는다며 어머니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 받은 50대에 대해 항소심 법원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장흥기 부장판사)는 존속폭행치상·존속폭행·재물손

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A(56)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7일 오후 4시 55분께 전남 한 지역 아파트에서 부친이 남겨둔 유산을 나눠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머니 B(78)씨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어깨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018년 9월 23일 오후 6시께 같은 아파트에서 어머니의 머리채를 잡고 거실 바닥에 내동댕이쳐 다치게 하고 텔레비전을 부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동생이 돈을 너무 많이 썼다’는 자신의 말을 들은 어머니가 ‘동생이 천만 원대를 썼으면 너는 억대를 썼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 확산에 광주 대학가도 ‘긴장’

조선대학교 오는 30일부터 전면 비대면 수업

최근 전국 각지의 대학에서 코로나19 확진 학생이 잇따라 발생하는 가운데 광주 지역 대학가도 긴장 속 학사 운영 방식을 변경하고 방역을 강화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3일 조선대학교에 따르면 오는 30일부터 시험·실습·실기 교과목을 제외한 모든 강의를 전면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한다.

이는 지역 사회 내 코로나19 감염 확산과 이에 따른 격리자가 다수 발생하는 데 따른 조치다.

수업방식 변경 1주일 전인 이날부터 오는 27일까지는 비대면 수업 전환을 위한 준비 기간으로 정했다.

준비 기간에는 교과목 담당 교수 재량 아래 탄력적으로 수업을 진행한다.

호남대학교도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 상향 시점에 맞춰 비대면 수업 권장 공문을 각 단과대학에 발송했다.

대학 측은 현재 대면 수업을 하는 강좌는 소수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 학생이 발생한 전남대학교는 원격수업과 제한적 대면 수업을



조선대학교 전경

병행 중이다.

대학 측은 단과대학별 상황에 따라 수업 방식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 매일 관련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상황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이달부터 시험·실습 과목 위주라면 제한적 대면 수업을 이어가는 동산대학교와 광주대학교도 현 수업 방식을 유지하며 보다 강화된 방역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한 대학 관계자는 “2학기 학사 일정이 한 달가량 남았다. 이 기간 캠퍼스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학의 모든 역량을 쏟을 계획이다”고 말했다.

신봉우기자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

